



포토리아 텐컬렉션 9월 프로젝트

초현실 세계로의 초대 ‘가짜 서랍의 정체를 밝혀라!’

포토리아(www.fotolia.com)가 텐컬렉션 이벤트를 통해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디지털 아티스트인 세르지오 델 푸에르토(Sergio Del Puerto)의 작품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텐컬렉션은 한 달에 한 명씩 세계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를 선정해 작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 디자인 교육 프로젝트로 9월 이벤트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자료 제공 | 포토리아

‘가짜 서랍’이라는 제목의 9월 텐컬렉션 작품은 호기심의 캐비닛(Cabinet of Curiosities)이다. 호기심의 캐비닛은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가지 진귀한 오브제 등을 모아놓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티스트는 특이하고 흥미로운 오브제를 모아 전통적인 컬렉션보다 컬러풀하고 동적이며 초현실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지속적 개인 작업 통해 스타일 완성

9월 아티스트로 선정된 세르지오 델 푸에르토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Serial Cut™ 스튜디오의 설립자이자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마드리드의 유명 나이트클럽 전단지로 첫 작업을 시작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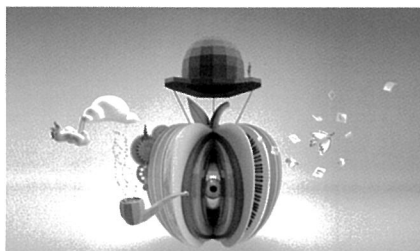
이제는 굵직한 클라이언트와 작업하는 인기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또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진정한 디자이너라고 굳게 믿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인 작업을 통해 그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다. 작품 포트폴리오는 웹사이트(www.serialcu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텐컬렉션 작품 PSD 원본 소스 파일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텐컬렉션 웹사이트(www.tenbyfotolia.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텐컬렉션 비디오(아티스트의 일상 비디오+튜토리얼 비디오)는 상시 감상 가능하다. 아울러 페이스북 텐컬렉션 페이지(www.facebook.com/TenCollectionKorea) 팬에게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추가 24시간 동안 무료 다운로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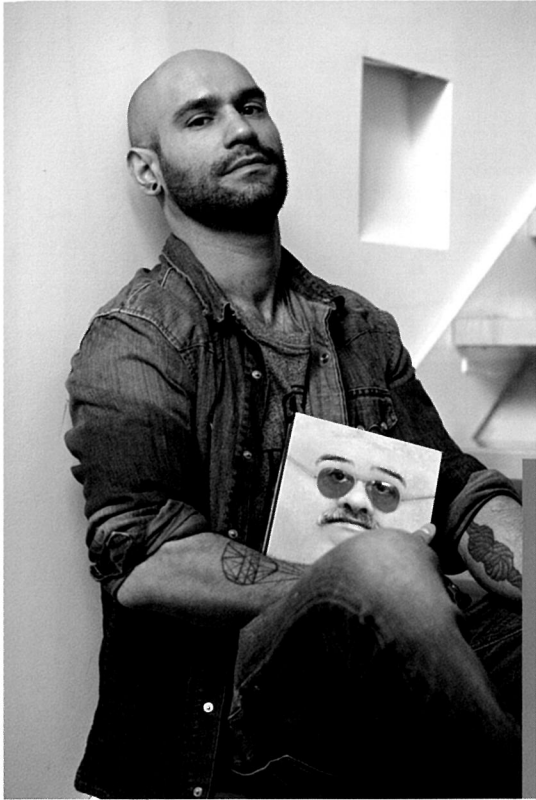
AdobeAmpersand



Culturapple



Eggtick



세르지오 델 푸에르토

“탄성 지를 수 있는 강렬한 시각 효과 추구”

브 루발린(Herb Lubalin)의 그래픽 작품과 타이포그래피를 좋아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적과 영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작품 활동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준다.

와 연필만 있으면 의사 전달이 한결 쉬워진다. 디자인 소프트웨어로는 일러스트레이터보다 포토샵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3D는 배우고 싶기는 하지만, 스튜디오에 3D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텐콜렉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행사와 프리랜서 중 선호하는 일의 형태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일할 때는, 타인 이 내 비전과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혹 디자이너를 단순한 기계나 도구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에너지를 100% 쏟아내기 어렵다. 대행사에서 일할 땐 주어진 업무를 거절할 수 없는데, 개인 스튜디오를 설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존재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를 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간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텐콜렉션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다양한 아티스트가 같이 참여해 더욱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아티스트, 그래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텐콜렉션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다.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나?

사물, 사람, 예술작품, 건축물, 디자인 등에서 영감을 얻는데, 소재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던한 현재의 자료보다는 주로 고전과 같은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한다. 특히 과거의 작품들을 새롭게 재해석해보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기본으로 해 마그리트(Magritte)의 작품을 재현한 적이 있다. 디자이너로는 허

특별히 선호하는 고객 유형이 있나?

그렇지 않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같은 고객이기 때문이다. 큰 회사는 최종 의사 결정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보면 아이디어가 잘못 전달되거나 일부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작품을 잘 이해하고 의사 결정도 빠른 중간 규모 의 고객을 선호한다.

텐콜렉션 작품을 통해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나?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추구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이미지 속의 디테일을 살펴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특히 사람들이 작품 그 자체나 완성 방법 등을 가우뚱하게 하는 걸 즐긴다. 텐콜렉션 작품도 사람들이 첫눈에 강렬한 비주얼을, 그리고 서서히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의도했다.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주 단순해보이면서도 특별함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있다면?

와콤 팬이다. 마우스 대응으로 사용하며, PC는 항상 휴대한다.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스페인 출신이 아니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 PC